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목록화와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김중신 수원대학교 국문과

- I. 서론
- II. 문학 작품 교육적 목록화에 대한 전제
- III.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목록의 비판적 검토
- IV.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단계
- V.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요건
- VI. 결론

I. 서론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필생의 연구 과제는 하나 정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국어교육, 그중에서도 소설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도 나름대로의 필생의 연구 과제를 갖고 있었다. ‘문학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그것이었다. 학부에서 국어교육을, 석사에서 한국 현대 소설을 전공했던 필자는 10여 년간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가르치면서 ‘과연 훌륭한 작품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과제는 도저히 해결이 난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있고, 또한 그때마다 좌절을 맛보곤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학의 본질적 속성, 그리고 문학교육의 정체성 규명에 대한 일말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내심 갖고 있었다. 글을 만들기 위한 중세의 연금술사들의 시도는 헛된 것이었긴 하지만, 이들이 겪었

던 시행착오들이 과학 발전에 나름대로 공헌을 했다고 하지 않던가. 이러한 시도는 필자로 하여금 학교 현장보다는 문학 연구 그리고 문학 교육에 대한 전문적이며 이론적인 연구의 장에 있어야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결국은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는 만용 아닌 만용을 부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박사과정에서 연구의 화두로 삼았던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문학 혹은 문학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당면하게 되는 난관은 문학의 근본 구조의 애매성과 이로 인한 감상의 다기성이다. 물론 이러한 점이 문학을 문학답게 하고 문학의 생명력을 오늘날까지 지속시켜 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문학의 구조에 대한 내적 통일성이 단층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문학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근본 구조에 대한 내적 통일성을 파악해 내는 것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문학교육의 근본 구조가 애매하다는 것은 문학을 근본 속성으로 하고 있는 문학교육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학의 경우에서 같이 문학교육의 근본 구조가 내적인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보다는 이를 간파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보인다. 다시 말해 문학교육의 내적 통일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는 문학교육이 안고 있는 현재적 한계임과 동시에 문학교육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학교육의 본질은 문학과 문학교육에 대한 변별성의 확인,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교육하는 것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구별해 내는 능력, 문학의 구성성과 규정성의 확인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학 연구의 내적 통일성을 밝히는 작업은 문학 작품을 인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요인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¹

1 필자는 훌륭한 작품을 규정하는 속성, 즉 문학성을 규정하는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국어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시작된 것을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 잡는다면 국어교육 정전 텍스트에 대한 논의도 대략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어교육이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대상에 대한 엄밀한 천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전 텍스트의 목록화에 대한 논의가 25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속되는 것은 학문적 망기 혹은 태만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두루 아시다시피 정전화, 혹은 교육적 목록화는 선정 주체의 신뢰성, 선정 기준의 타당성, 선정 결과의 공정성을 담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과도 공인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교육 텍스트의 속성상,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가 지난(至難)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탐색은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는 국어교육 텍스트 중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교육적 목록화 선정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박사 학위의 주제로 삼고 수년간 고민했다. 처음에 시도했던 과제를 학위논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고, 이것은 수십 차례에 걸친 동학들과의 토론과 지도교수와의 면담 과정을 통해 수정되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차 제목: 문학작품 감상의 인식적 준거(認識的 準據) 설정을 위한 연구
- 2차 수정제목: 문학교육연구의 현상과 본질 — 인식적 준거 설정을 중심으로
- 3차 수정제목: 문학과 문학적 감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 4차 수정제목: 문학작품의 감동 요인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 5차 수정제목: 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과정과 유형에 관한 연구 — 경험적 평형성과 그 일탈을 중심으로

최종 제목: 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김중신, 『소설감상방법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6.

II. 문학 작품 교육적 목록화에 대한 전제

훌륭한 문학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설을 전제한다.

〈가설 1〉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작품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설 2〉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작품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은 존재한다.

〈가설 1〉은 원론적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명제이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서 미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독자는 누구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 다시 말해 특정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 낫다고 평가하는 것은 개인적인 심정적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 작품을 읽은 뒤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문학 작품 감상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문학작품의 생명성을 담지해 내려는 의도에서 보인다. 특히 독자를 작품의 주체적 해석자로 보는 독자반응이론이나 수용미학 등의 대두로 인해 작품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론적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심정적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는 미학의 오래된 명제인 ‘미적 인식의 상대성’에 근거한 가설이기도 하다.

한편 〈가설 2〉는 다분히 실제적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명제이다. 원론적으로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대중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작품, 보편적으로 감동을 주는 작

품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학교의 백일장을 통해서 장원작이 가려지게 되고, 신춘문예를 통해서 1편의 당선작과 수많은 낙선작을 가려내고 있는 것이다.²

또한 김인정 교과서 체제가 도입된 이후 많은 교과서 필자들은 자신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할 문학 제재에 대해 고민하면서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개별 교과서 필자들이 자신의 교과서에 수록할 작품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게 되지만 각 교과서들에 수록된 작품 목록 빈도표를 보면 늘 상위권을 점하게 되는 작품들은 대동소이함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누구나 인정하는 소위 ‘훌륭한 작품’,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품’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무엇이며, 교과서 필자들은 그것을 왜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공인되지 않고 왜 ‘암묵’화되는가? 필경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합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담론화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 앞에서 이야기한 <가설 1>에 대한 압박감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문학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공공연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작품에 대한 평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언론사의 신춘문예의 심사평을 한 예로 들어보자.

“水壓 센 한국 詩의 바다서 보물 건질 능력있어”

2 물문 <가설 1>에서는 이러한 심사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백일장이나 신춘문예 심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특정한 심사위원의 잣대일 뿐이지 작품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의 성실한 정신적 산물이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오늘의 심사장에서 휴지통에 버려진 작품이 졸작이라고 비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다만 그 작품은 자신을 알아주는 심사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김승혜 ‘소백산엔 사과가 많다’, 장성실 ‘소금쟁이 메모’, 이병일 ‘빈집에 편 목련’, 이다연 ‘가설무대’를 최종심 대상작으로 좁혀가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 이는 이들 네 작품이 최소한, 누가 읽어봐도 “이게 시야?”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게끔, ‘스스로 시를 성립시키는’ 구성의 내구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당선작을 고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정을 두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우리 두 심사자들을 꽤 괴롭혔다. 이들 네 작품이 두루 괜찮았다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눈에 확 띄게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작품이 없었다는 말도 된다. 결국 우리가 이번 심사에서 기대하고 예감하고자 한 것은 누가 보다 오랫동안 시를 쓸 수 있겠는가, ㉢ 수업이 센 한국시의 해저에 누가 더 오랫동안 잠수하여 보물을 건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 문정희·황지우 시인, 2005 조선일보 신춘문예 詩부문 심사평

위의 심사평에서도 문학 작품 평가에 대한 두 개의 가설이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다. ㉠에서는 〈가설 2〉가, ㉡에서는 〈가설 1〉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심사자들은 심사 결과가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다. 심사자들은 ㉠에서 말한 ‘구성’의 내구력’의 정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라는 ‘오랫동안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는 합의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들의 심사평이 얼마나 엄중했는가 하는 평가는 또한 ‘훗날’이라는 잣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합의’는 좋은 작품에 대한 평가로서 문학 연구자, 혹은 대중에게서 인정받고 있는 속성들이지만,³ 이를 공적인 담론으로 할 수 없기에 ‘암묵적’이 되는 것이다.⁴

3 이러한 합의에는 작품 내적인 준거뿐만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준거로 아울러 작용이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4 이 대립의 접점은 주로 예술 작품과 같은 정의적 텍스트의 감상에 있어서 인지적 작용과 정의적 작용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지 우선론은 인지와 정의는 서로 양립된 것이며, 정의는 인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 우선론은 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암묵적’인 평가를 공적 담론화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III.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목록의 비판적 검토

특정 자료에 대한 목록화를 시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학 전문가가 혹은 문학 교육 담당자들의 학문적 식견을 토대로 한 임의적인 목록화,⁵ 혹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목록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여러 목록들을 수합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다.⁶

전자의 방식은 이미 문학 교사 1,000명에게 문의하여 수합한 목록이 보고되어 있다.⁷ 이 방식은 간편하긴 하나 설문 방식, 설문지 내용, 피조사자에

와 정의는 단일한 것이며, 인지가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입장이다. 인지적 작용과 정의적 작용은 모두 정신적 작용이고, 따라서 양자는 동일한 사고 작용이라는 것이다. 임일환, 『감정과 정서의 이해, 감성의 철학』(정대현 외), 민음사, 1996, pp. 31-52; 오병남, 『미학 강의』, 서울대 미학과, 1993, pp. 185-222.

5 이외에도 일선 출판사에서 선정한 한국 근대 문학 전집 수록 목록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업적 사이트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http://www.yes24.com/campaign/00_corp/2013nobel/main.aspx?&Gcode=000_028_001.

6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원자료(raw data)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enumeration)에는 타계식 조사 방법과 자체식 조사 방법이 있다. 타계식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설문에 따라 피조사자에 문의해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방식이며, 자체식 조사방법은 피조사자가 조사표의 설문에 대해 직접 그 답을 조사표에 기입하는 조사방식이다. 이철수와 공저,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7 류수열 · 유영희 · 한창훈, 「우리 시대 문학교육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문학과 교육』 18호, 문학과교육연구회 편, 2001; 김중신 · 염은열 외, 『학교문학론』, 2001년도 교과교육공동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서(과제번호: KRF-2001-030-C00041).

대한 속성 등에 따라 설문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은 현재 각 분야에서 제시되어 있는 작품 목록을 수합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학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 ㉠ 검인정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
- ㉡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출제 작품 목록
- ㉢ 수능 연계 EBS 교재 수록 작품 목록

㉠은 검인정 체제에서 발행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목록이다. 문학 양식이나 주제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선정자들이 교과서 필자라는 점에서 주체의 신뢰성, 검인정 통과를 전제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의 타당성, 실제로 작품 수록의 빈도 순위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 결과의 공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목록은 ㉡과 ㉢의 주요한 토대를 이룬다는 점, 또한 일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작품집 목록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갖고 있다. 다만 ㉠은 목록화 결과만 제시될 뿐 목록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⁸ 특정한 행동 영역이나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재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문학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과서가 개편될 때 다시 목록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시성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은 실제로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1993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된 이래 본수능과 모의 수능에서 출제된 작품은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갖고

8 물론 이 목록을 선정할 때에는 교육 당국에서 제시한 검인정 교과용 도서 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국가적 정체성, 사회적 통념 등을 준용하고 있어 문학성을 판정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있는 영향력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다. 하지만 작품이 문학적 감상용으로서가 아니라 문제풀이의 지문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는 제한적이며, 작품 전문이 수록되지 않고 2,000자 내외의 제한된 분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한 20명 내외의 출제진들은 제한된 시간에 한두 개의 작품만을 선정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㉔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작품을 선정한다는 면에서 선정 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작품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하며 여러 번의 선정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타당성도 확보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수험생들이 모두 작품을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㉔이 발행되는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다는 점, 선정된 작품의 목록이 한국 문학사에서 거론된 전 작품을 망라하는 수준이라서 선택의 유의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은 목록은 단순히 선언적 목록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입시용 문제풀이의 지문으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품 전문 수록이 제한된다는 점, 문학사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대목의 특정한 요소만이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정한 교육 정전의 목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IV.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단계

목록(list)의 사전적 풀이는 ‘물품이나 사람의 이름 따위를 일정한 순서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일정한 순서’이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후 이를 적절한 기준으로 묶고 나서 각 묶음별로 가치에 따라 서열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각 ‘선정’, ‘분류’, ‘순위화’ 단계에 해당하며, 이는 곧 교육적 목록화의 단계가 된다.

1. 선정(selection)

수많은 모집단 중에서 특정한 것을 합목적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곧 선택되지 않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정된 것이 합목적적으로 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곧 배제된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의 목적이 ‘국어교육적’이라고 한다면 선정하는 기준은 ‘국어’와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결코 유리(遊離)되거나 선택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 내용까지 통제하는 현재의 교육 체제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전자는 국어,⁹ 즉 문학적으로 합목적적인 것이어야 하며, 후자는 피교육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에 합목적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자, 즉 문학의 합목적성을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나 형식, 소재 등과 같은 작품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이나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등과 같은 작품 외적 요인도 문학적으로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비단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재나 사건, 인물 등이 초등이나 중등 연령의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합목적적이지 않다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를 구체적인 작품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자. 7차 교육과정¹⁰의 문학 18종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김동인의 <감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9 문학은 ‘국어과’에서 다루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범위는 문학 작품으로 한정한다.

10 굳이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선택한 것은 이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가 10여년 이상을 고등학교 현장에 통용되어 현 시점에서 문학 작품의 고전성을 가늠하는 교과서가 되어 있다. 이후에 개정된 2009년 개정이나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적용 시기도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감자》

- ㉠ 김동인(金東仁)이 지은 단편소설. 1925년 『조선문단(朝鮮文壇)』 1월호에 발표되었다. 작자의 작품 중 환경적 요인이 인간 내면의 도덕적 본질을 타락시킨다는 자연주의적인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난 대표작이다.

〈내용〉

- ㉡ 복녀는 가난하기는 해도 정직한 농가에서 바르게 자란 처녀였다. …(중략)…그 뒤 복녀는 동네거지를 상대로 적극적인 매춘을 하고, 마침내 감자를 훔치다가 들켜서 감자주인인 중국인 왕서방과 공공연한 매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왕서방이 다른 처녀와 혼인하게 되자 복녀는 질투심 때문에 닳을 들고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왕서방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의의와 평가〉

- ㉢ 이 이야기는 환경에 의해 타락해가는 복녀의 일생을 시종 냉엄한 객관자의 시점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복녀의 시체를 놓고 왕서방과 한의사와 복녀의 남편 사이의 금전거래 장면을 냉철하게 부각함으로써 비정한 인심을 객관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 ㉣ 이처럼 이 작품은 작자가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냉철한 문체와, 간결하고 직선적인 짜임, 장면묘사 및 대화의 적절한 삽입 등 단편으로서 완벽한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의 한 전형을 이룩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 ㉤ 그러나 식민지사회의 빈궁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빈궁의 원인을 남편 개인의 천성적 게으름으로 파악한 것이라든가, 도덕의식의 변모에 결정적 계기가 된 송충이잡이 감독과의 매음에서 복녀의 갈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현실인식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물·행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지는 한계이다(밀줄 및 강조는 인용자).

- 네이버 지식백과, 감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의 해설에서 ㉠의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 ㉡의 ‘근대 단편 소설의 한 전형’ 등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이며, ㉢의 ‘자연주의적 색채가 잘 드러난 대표작’, ㉣의 ‘냉엄한 객관자의 시점으로 조명’ 등은 작품성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요건들은 이 작품의 문학적 합목적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 ‘적극적인 매춘’, ‘공공연한 매음’과 같은 소재나 ‘왕서방에 살해’된다는 사건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에 비추어 교육적 합목적성에 부정적으로 기여한다.¹¹⁾

결국 <감자>라는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여부는 ㉠, ㉡, ㉢의 긍정적 인 요건과 ㉤의 부정적인 요건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분류(classification, categorization, group)

분류화는 선정된 작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묶는 단계이다.

1) 통시적 분류

문학 작품에 대한 분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시적인 흐름, 즉 문학사적 흐름에 따라 묶는 것이다. 이는 필연코 시대별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 고대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사의 순서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문학사적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교육적 목록화하는 것이므로 문학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장치가 없어도 되며, 아울러 교수자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작품 목록의 선정화를 배제할 수 있다.

11 ㉤의 ‘현실인식의 정확성 결여’나 ‘인물·행위의 개연성 부족’ 등은 작품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작품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오히려 적합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목록화하는 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교육을 문학사적인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육적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급별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에 따른 작품 선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즉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선정된 문학 작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불과 1년 전의 사건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과까지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학계의 역사적 평가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다루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30년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국사 과목이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역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몫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학회에서는 2000년도 이전까지의 작품만을 다루는 것이 암묵적인 묵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사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작품을 교육적 목록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사실 신춘문에 당선작이나 갓 등장한 신인들의 작품을 교실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표현 기법이라든가 발상, 구상 등과 같은 문학적 기법 등의 교육적 제재로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¹² 문학 작품은 텍스트로서 존재하지만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학작품의 창작 시기를 교육적 목록화의 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좀더 전향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 너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 사라졌어 - 하상욱, 포토샵, <단편집>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들게 돼 - 하상욱, 애니팡, <단편집>.

2) 공시적 분류

다음으로는 문학 작품의 공시적 특성에 따른 분류로서 이는 문학 작품의 각 요소별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제나 소재 등과 같은 작품의 내용적 특성과 기법이나 문체 등과 같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분류이다.

다음에 제시된 고교 문학 교과서의 목차¹³는 분류의 기준에 따른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상권〉	〈하권〉
1. 문학이란 무엇인가	1. 한국 문학의 여명기
2. 시문학과 노래하기	(1) 고대시
(1) 노래하기와 언어	(2) 설화
(2) 운율과 여조	2. 구어와 문어의 이원화 - 고려 문학
(3) 비유와 심상	(1) 향가와 고려가요
(4) 시의 수용과 창작	(2) 가전체 소설
3. 소설 문학과 이야기하기	3. 민족 문학의 수립기 - 조선 전기의 문학
(1) 이야기와 허구	(1) 약장과 시조
(2) 인물과 구성	(2) 한글 소설
(3) 시점과 문체	4. 문학 담당층의 확대 - 조선 후기의 문학
(4) 소설의 수용과 창작	(1) 시조와 가사
4. 극문학과 보여주기	(2) 판소리와 대하 소설
(1) 보여주기와 꾸미기	5. 근대화의 여명 - 개화기 문학
(2) 대결과 해결	(1) 신소설과 개화기사가
(3) 극문학의 수용과 창작	6. 저항과 모색 - 근대 문학기: 1920-1945
5. 수필 문학과 들려주기	(1) 계몽과 고발의 변증
(1) 고백하기와 진실	(2) 저항과 순응의 문학
(2) 성찰과 발견	7. 산업화와 인간 - 현대 문학: 1945-1990
(3) 수필의 수용과 창작	(1) 전쟁과 전통
	(2) 도시와 인간

(상)권은 문학의 공시적 흐름에 따라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하)권은 문학의 통시적 흐름에 따라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권은 문학의 갈래별 특징에 따라, (하)권은 문학의 시대적 전개 양상과 특징이 부각이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문학의 미적 가치와 함께 발달 및 전개 양상을 동시에 파악하

13 김대행 · 김중신 · 김동환, 『고등학교 문학』, 교학사, 2002.

게 함으로써 문학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특정한 요소에 따라 작품을 분류할 수도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된 ‘고전’ 과목의 성취 기준 중에는 주제별로 텍스트를 예시로 들고 있다.

(8) 고전을 읽고 공동의 관심사나 현대 사회에 유효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통합적 국어활동을 수행한다.

‘인간의 본성’, ‘사회와 갈등’, ‘문명과 기술’, ‘예술과 문화’,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를 정하고 이 문제를 고전을 통해 탐구한다. 하나의 문제를 여러 고전을 통해 종합하여 탐구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고전을 통해 여러 문제를 심화하여 탐구할 수도 있다.¹⁴

유사한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묶어 보면서 문학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제별로 선정된 작품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¹⁵

1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5], p. 156.

15 실제로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시리즈(휴머니스트, 2006)에서는 주제별로 문학 작품을 묶어서 편찬하고 있다. 참고로 현대소설작품을 수록한 7권(강영주 편)에는 모두 4개의 주제에 15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근대의 풍경 01 무정 02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03 복덕방 04 동백꽃

II. 역사의 수레바퀴 01 젊은 그들 02 임궫정 03 복간도 04 토지

III. 산업화의 그늘과 진실 01 관촌수필 02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03 삼포 가는 길 04 도시의 흉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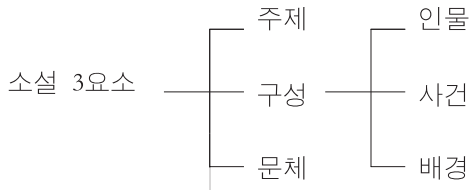
IV. 여성성의 탈주 01 인간 문제 02 젊은 느티나무 03 중국인 거리.

3. 순위(順位, hierarchy)

순위는 분류 내에서 교육 목표에 대한 합목적적 기여도에 따라 중요도를 평정하는 것이다.

수록 교재의 분량, 수업 시간의 제한 등 문학 외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교육 대상을 정해야 할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 목표의 위계화¹⁶(hierarchy of instructional objectives)를 구체화한 가네(R.M. Gagné)에 의하면 이러한 위계는 정보 및 지식, 지적 기능, 인지전략, 태도 및 가치관, 운동기능 등 다섯 영역 중에서 지적 기능 영역의 학습에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한다.¹⁷ 문학 작품 감상과 같은 정의적 기능 영역의 학습에서는 좀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문학 이론과 같은 지적 기능 영역의 학습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와 구성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학습 목표에서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보다 우선적인 교육 목록이 될 것이다.¹⁸

16 순위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위계화(hierarchy)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많은 구체적 수업 목표 간의 계열적 순서를 말한다. 어떤 특정한 수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가 있을 때 수업 목표의 위계화를 이루게 된다.

17 김병봉 외, 『교육심리학』, 서현사, 2007. p. 345.

R. M. Gagné(1985),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olt, Rinehartand Winston.

18 마찬가지로 해서 소설에서 '복선(under-plot)'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성(plot)'을 미리 학습해야 할 것이다.

표 1. 한국 근대 소설에 대한 요인별 순위 평정의 예

작가	작품	공시적 요인(문학사)		통시적 요인(작품성)		
		연도	의의	내용(주제)	형식(기법)	
이인직	〈혈의 누〉	10	최초의 신소설	○ 애국계몽	언문일치, 우연성남발	
이광수	〈무정〉	10	최초의 근대소설	◎ -문명 개화 -자유연애 사상	○ 근대적 소설 문체 확립	
김동인	〈감자〉	20	자연주의(환경 결정론)에 입각	○ -빈곤 여성의 비극 -환경에 의한 인간의 타락	경악적 결말	
김동인	〈배따라기〉	20	유미주의적 성향	형제간의 운명적 비극	○ 액자 소설 형식	
현진건	〈운수좋은 날〉	20	사실주의의 개척	○ 식민지 하층민의 비참한 삶	○ 반어적 기법	◎
염상섭	〈삼대〉	30	가족사 소설	◎ 30년대 중산층의 삶	○ 호흠이 긴 문제, 치밀한 묘사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30	단편소설의 백미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애정	○ 수필적 문체, 풍경 묘사	◎
박태원	〈소구일〉	30	세태소설	◎ 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	카메라 기법, 비인과적 구성	◎
이상	〈날개〉	30	초현실주의	○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분열된 의식과 자기극복	자아의 확인, 의식의 흐름	○
채만식	〈태평천하〉	30	30년대 현실의 우회적 비판	○ 윤직원 일가의 몰락 과정을 통한 일제강점기의 타락한 삶 비판	○ 현실 풍자	○
김유정	〈봄 봄〉	30	고전문학의 해학성 계승	◎ 30년대 농촌 젊은이들의 애정과 현실 비판	○ 희극적 인물 형상화	◎
김동리	〈역마〉	40	허무적 운명의식	운명예의 순종과 구원	공간의 상징성	○
전광웅	〈꺼삐딴 리〉	50	지식인의 변신	민족 격변기에 변신하는 지식인의 이중적 삶	○ 역순행적 구성	
황순원	〈소나기〉	50	순수 소설의 전형	소년 소녀의 사랑이야기	○ 복선, 단문화된 문체	

하근찬	〈수난 이대〉	50	전후 문제의 극복		일제강점기 및 분단을 겪은 부자의 비극	○ 교차 구성 및 복선	○
황순원	〈나무들비탈에 서다〉	60	전후 문제의 극복	○	전쟁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청년들의 삶	공포, 고독, 상처 등의 리얼리즘적으로 형상화	
최인훈	〈광장〉	60	분단 문제를 최초로 다룬 작품	◎	분단된 조국에서의 지식인의 이념적 방황	○ 회상적 구성과 관념적 문체	
김승옥	〈무진기행〉	60	6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성과	◎	현대인의 소외 의식	○ 원점회귀식 구성, 한글 세대의 문체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70	70년대 대표적인 참여문학	○	뿌리 뽑힌 자들의 갈 곳 없음	○ 단편 소설의 시적 경지	
조세희	〈난쏘공〉	70	70년대 노동문학의 중요한 결실	○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도시 소시민들의 아픔	○ 난장이와 거인의 우화적 설정	○
윤홍길	〈아구사〉	70	산업화의 그늘을 그려낸 문제작	◎	소시민의 허위 의식 고발	○ 구두의 상징 및 암시적 기법	○
오정희	〈중국인 거리〉	80	여성의 자아와 정체성 탐구		여성 성장 소설	○ 후각적 이미지 묘사	○
박완서	〈엄마의 말뚝〉	80	분단의 비극을 개인사적으로 서술		엄마의 존재가 자신의 정신적 성장에 미친 영향	○ 체험에 대한 회상 형식	
김소진	〈자전거 도둑〉	90	90년대식 리얼리즘의 가능성		유년 시절의 기억이 남긴 상처	○ 영화 모티브와 중첩	
조정래	〈태백산맥〉	90	분단 문학의 최고봉	◎	분단의 고통과 극복	○ 사투리와 비어의 생생한 구사	○

〈표 1〉은 한국 근대 소설에 대한 요인별 순위 평정의 한 예이다. 이 표에 제시된 25편의 작품들은 선정자가 판단한 교육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각 요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되고, 이러한 결과는 곧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순위가 될 것이다.

V.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요건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는 정전 형성을 위한 요건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작품으로서 독자들과 만나고,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만난다. 따라서 정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가’, ‘작품’, ‘독자’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¹⁹

먼저 작가의 측면에서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는가라는 ‘역사성’, 작품의 측면에서는 그의 작품이 당시에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당대성’과 그의 작품은 아직도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라는 ‘함의성’을 요건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독자의 측면에서는 그의 작품이 오늘날 현대의 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라는 ‘현재성’과 독자들이 그의 생애나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가라는 ‘흥미성’을 요건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그대로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²⁰은 정전으로서의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학습 독자의 성격에 따라 교육적 목록에 선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윤동주의 작품이 교육적 목록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그의 생애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전의 요소에 해당하는 작가와 작품, 독자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인지적 파악 여

19 이하의 내용은 졸고, 「문학교육에서의 정전 형성 요건에 관한 시론(試論) —이상(李箱)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08을 참조할 것.

20 “조선 후기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양반전을 학생들은 대개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배운다. 학생들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까. 이날 토론회에 나온 김향숙 인천 용현여중 수석교사는 ‘대개 양반전에 대해 서너 시간 수업을 하지만 제대로 따라오는 아이들은 한 반에서 열 명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탓이다.” 중앙일보, 「뒤엎긴 교육과정 개선 어떻게 … 교사들 의견 들어보니」, 2013.11.05.

부가 교육적 목록화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목록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거의 없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장벽, 그것도 상당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 학습의 교육 목록에 문학 작품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문화적 이해를 가로막는 중요한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의 교육 목록은 작품 자체의 고유성보다는 교육적 목적 수행을 위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살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붉는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의 원문

㉡ 夏季赶集从来都不热闹, 太阳还没落山, 但集市上已很冷清, 毒辣辣的太阳直射着小摊的帐篷, 做生意的人都快被烤焦了. — 위 작품의 중국어 번역문

㉢ 여름 장날은 시끄럽지가 않아서, 해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장터는 이미 쓸쓸하고, 뜨거운 햇살이 작은 가게의 천막에 내리 쏘어 상인들은 뜨겁게 구워진 것 같다. — 중국어 번역문의 한국어 재귀 번역문

㉠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첫 부분이다. 원본에 제시된 어휘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곤란하다. 이러한 점이 문학 작품을 한국어 교육 목록에 수록하기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은 이를 다시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대개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어를 이해하게 된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나 한자어 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오독의 여지를 상당히 줄어뜨려 해 준다. ㉔은 ㉓을 저본을 해서 다시 한국어로 재귀 번역²¹한 것이다. ㉓에 비해 구사되어 있는 어휘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으며 문장도 간략하여 이해가 쉽게 된다. 물론 원작과 표기 면에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초기 학습 단계에서 한국 문학에 담지되어 있는 정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VI. 결론

훌륭한 문학 작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문학이 존재한 이래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기준을 세운 후에 작품을 판정하는 것보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알려진 작품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해 선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행에 묻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방법에 관한 논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문학 작품의 정전성에 대한 논의와 달리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는 별도의 기준이 요구된다.

이것은 문학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 독자의 속성과 관련된다. 문학사적으로 인정받는 정전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목록으로 채택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는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의 작업은 일반적인

21 '재귀 번역'의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한옥순, 「문학 작품의 재귀 번역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박사 논문, 2012.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전성 외에 학습독자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교육적 타당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적 목록 선정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5.
- 조선일보, 「신춘문예 詩부문 심사평」, 2004.12.31.
- 중앙일보, 「뒤엎긴 교육과정 개선 어떻게 ... 교사들 의견 들어보니」, 2013.11.05.
- 하상욱, 단편 시집, 2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자, 네이버 지식백과.
- http://www.yes24.com/campaign/00_corp/2013nobel/main.aspx?&Gcode=000_028_001.
- 강영주 편(2006),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7권, 휴머니스트.
- 김대행·김중신·김동환(2002), 『고등학교 문학』, 교학사.
- 김영봉 외(2007), 『교육심리학』, 서현사.
- 김중신(1996), 『소설감상방법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 _____(2008), 「문학교육에서의 정전 형성 요건에 관한 시론(試論) - 이상(李箱)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권.
- 김중신·염은열 외, 『학교문헌론』, 2001년도 교과교육공동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서(KRF-2001-030-C00041).
- 류수열·유영희·한창훈(2001), 「우리 시대 문학교육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문학과 교육』 18호, 문학과교육연구회 편.
- 이철수 외 공저(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 임일환(1996), 『감정과 정서의 이해, 감성의 철학』 (정대현 외), 민음사.
- 오병남(1993), 『미학 강의』, 서울대 미학과.
- 한옥순(2012), 「문학 작품의 재귀 번역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박사 논문.
- Gagné, R. M.,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olt, Rinehartand Winston, 1985.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목록화와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김중신

문학 작품의 정전화, 혹은 교육적 목록화는 선정 주체의 신뢰성, 선정 기준의 타당성, 선정 결과의 공정성을 담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과도 공인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교육 텍스트의 속성상,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가 지난(至難)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탐색은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을 수 없다. 이 논의는 국어교육 텍스트 중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교육적 목록화 선정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육적 목록화 선정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문학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두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지만 문학 연구자, 혹은 대중들이 두 가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목록이 작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들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교육 정전의 목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를 위해서는 선정, 분류, 순위화라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목록(list)의 사전적 풀이는 ‘물품이나 사람의 이름 따위를 일정한 순서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일정한 순서’이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후 이를 적절한 기준으로 묶고 나서 각 묶음별로 가치에 따라 서열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각 ‘선정’, ‘분류’, ‘순위화’ 단계에 해당하며, 이는 곧 교육적 목록화의 단계가 된다.

‘선정’의 단계에서는 작품이 교육적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분류’는 통시적, 공시적인 기준 혹은 주제별, 장르별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마지막으로 ‘순위화’는 분류된 작품들을 교육 목표에 대한 합목적적 기여도에 따라 중요도를 평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마련된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은 작품의 정전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 선정은 일반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전성 외에 학습독자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교육적 타당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적 목록 선정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핵심어 문학 작품의 교육적 목록화, 선정 기준, 정전성, 한국어 교육과 문학 작품

ABSTRACT

A Study of educational list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Literary text

Kim, Jung-sin

What is the great work? and what is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great works?

The discussions of this questions have been to be continued since the literature existed.

Because of the customary attitude, such discussions does not become the development especially.

It is common that we does not appreciate the works great before setting standards for evaluating works great, and we set standards for evaluating works great after analyzing the properties of a great work.

It is similar to the discussion of the educational literature list. But the educational literature list are required of the different standards. That is the properties of learning-reader who is the subject of literary education.

Even though it is great works, there are works that are not adopted of a list of schools of education. It is considered of the educational validity by learning reader's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se characteristics are very important. The Korean as a second language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list for the education.

KEYWORDS canon, Literary educational list, the selection criteria of Literary text, learning reader